

사체를 해석하는 사람들

글 재훈

한국의 시체 일본의 시체 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과 일본의 원로 법의학자 우에노 마사히코의 대담을 엮은 대담집이다. 죽음이란 표지판을 따라 읽기 시작한 첫 번째 책이었는데, 책 전반에 걸쳐 두 사람의 우정과 신의가 느껴져 독서를 마칠 때 즈음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귄 듯이 담백하게 기뻐했다.

책은 (1) 한국 법의학자의 글 (2) 서로의 법의학 생활에 관한 대화 (3) 일본 법의학자의 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이란 대주제 아래 두 국가의 인식, 문화, 제도가 구체적인 부검 일화와 함께 부족함 없이 소개되는데 대담 형식이라 쭉쭉 읽는데도 막힘 없이 넘어갔다. 독서를 마친 나는 나와 같은 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사인死因을 상상해 보았다. 현재의 몸과 미래의 시체를 겹쳐보는 새 습관이 며칠간 나를 겹쳐하고 즐겁게 만들어주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고 보면 죽음만큼 그 사람의 진실을 잘 말해주는 장면이 또 없다. 가령 '불가사의한 변사체' 챕터에서는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죽여 놓고 죽은 아내의 가슴과 성기를 깨물어 변태성욕자의 범죄인 것으로 둔갑시킨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건을 맡은 문국진은, 시체에 남은 흔적을 기초로 사실 관계를 감정하는 법의학자답게, 시체를 부검했고 그곳에 새겨진 치형을 증거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

첫째로는 시체에 새겨진 치형과 범행 장소 인근에서 작업하는 임부들의 치형을 비교했다. 하지만 그중 치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조사 대상을 아내의 남편에서부터 마을 주민들로부터 확대했고, 검사 결과 유일하게 치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시체의 남편으로 밝혀졌다. 허나 자신의 아내를 죽일 남편이 어디 있겠냐는 통념과 수사관의 말에 문국진은 이 감정 결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다.

문국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의학을 하고 있는데 혹여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는 일로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이었기에, 문국진은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신중하게 검증한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몸을 물면 그 사람의 저항으로 인해 치흔에 굵혀진 자국이 생기지만 죽은 사람을 물면 치흔은 그대로 남는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치흔이 가해자의 눈속임일 것이라는 해석에 다다른다. 그러고는 이 감정 발표가 틀렸을 시 다시는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해자의 남편이 진범이라고 밝힌다. 결론은 싱거웠다. 남편이 재판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한 것이다.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눈 빠지게 기다렸을 테지.)

살인을 저지른 두려움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긴 남자의 이야기와 '여성 살인'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루어진 본 사건의 전말을 밝힌 결정적 증거는, 시체였다. 경찰이 자신에게 일임된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드는 것이 그 사건의 정황이라면, 법의학자는 시체를 부검하여 그에 남은 흔적들을 분석한다. 요컨대, 법의학자의 일은 시체를 사건의 결정적 텍스트로 간주하며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여러 약속이 하나둘씩 시들기 시작하면, 그 약속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는 부서지는 마른 잎처럼 빠스럭빠스럭 흘러내린다. 보도블록 곳곳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들을 하얀색 분필로 주욱 이을 때 출현하는 별자리의 또다른 이름이 '시체'가 아닐까? 이 지나간 현장의 자리에서, 우리는 차연서 작가의 직무를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 법의학자들과는 달리, 차연서는 법의학 도판에서 만난 시체들을 해석해야 할 텍스트로써 대하기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영혼으로서 만난다. 문국진이 시체들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작가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또 다른 점은 한국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의 특정성이다. 일례로, 법의학자 문국진을 대표하는 일화 중 하나는 그의 인터뷰집인 법의관이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다 의 제목에 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대, 문국진은 산속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단 채로 발견된 청년 시체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장을 나간다. 별다른 설비도 없는 산 한복판에서 그는 사과 상자 위에 널빤지를 놓아 임시 부검대를 만들고 그 위에 시체를 올렸다. 그리고 부검을 시작하려던 찰나, 도끼 하나가 문국진의 머리를 스치며 시체 옆으로 떨어진다. 청년 시체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의 '두 번 죽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집도자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왜 그랬던 걸까? 할아버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벌주검'이란 단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두벌주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로는 '죽은 뒤에 해부나 검시 또는 화장을 당한 시체'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 죽음을 당한 시체'라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신체관이 곧 한국인의 사고방식이다. 이 이야기를 들던 우에노는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부검했을 때 (도끼 할아버지의 정동과 같은 것을 공유하는) 한국 유족들의 분노를 떠올린다. 그 당시로서 우에노는 "당신은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느냐"라는 유족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문국진의 사례를 들으니 그 긴 세월 남아 있던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이어지는 대화에는 부검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대중적 인식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본 사람은 부검을 꺼림직하게는 여기지만 그래봤자 '부검해 봐야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 정도이지 한국 사람의 분노 감정에 비견할 바는 못 된다. 시체와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은 한발 물러서 있고 애매한 사이에 있던 사람이 부검을 못 하게 막았다는 명예감을 획득하기 위해 큰소리를 내는 정도. 이와 달리 미국인은 부검을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행위로 생각하며, 캐주얼하게 여긴다. 사인을 정확히 알아야 유전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식이 법의학자에게 전화를 걸어 뉴욕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부검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할 정도란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저마다의 죽음관과 그에 따른 장례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나의 죽음관 역시 지금껏 한국에서 배운 죽음에 관한 지식과 장례 문화로 빚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시간을 보냈던 이유도,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흘렸던 눈물에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도 죽음과 나 사이를 매개하는 질서를 한국의 죽음관과 장례 문화가 관할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처음 출석해 본 이후 몇 년간은 장례 예절에 짓눌린 채로 시간을 보냈다. 장례가 막다른 골목에 난 출구라면 나는 내게 주어진 출구를 물끄러미 바라본 채로 어리둥절 서 있던 것이다.

하지만 망자의 잔상이란 가만히 서 있는다고 저절로 지워지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 그를 '천국'과 같은 이세계로 잘 보내기 위해 마련된 장례 절차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자기 삶에서 계속해서 쌓일 시체들을 치우거나 그 죽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담배 한 모금처럼 간단할 수도, 쓰레기집 청소처럼 끝없는 수도 있다.

참고

1 위상: 위상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 문화권이 설정한 사후세계와 현실 세계의 교집합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또다른 모델은 없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현실과 죽음을 또다르게 관계 맺어주는) 차연서의 <축제>를 통해 생성되는 세계는 현실 세계와 어떤 위상학적 관계를 맺고 있을까?

위상학은 도형의 모양이 변형될 때 변하지 않는 성질인 연결성 그리고 연속성 등과 같은 작은 변환에 의존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위상수학에서 손잡이 달린 컵과 구멍 뚫린 도넛은 같다. 구멍이 하나 뚫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연서가 축제에서 필사한 법의학 도판의 시체들, 벌레들, 시어들은 필사되기 이전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 현실에서의 죽음이 축제에서의 죽음으로 변환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축제라는 시체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읽어낼 수 있을까?

¹ 모리스 블랑쇼, 카오스의 글쓰기, 박준상 역, 그린비, 2012